

2024년 3월 17일. 17 March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5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16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Mark 16:15-16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후반부를 지내면서 예수님 생각이 깊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후에 그들을 땅 끝까지 파송하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일에 분주하던 저희를 부르사,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명하신 그 복음을 저희가 받았고, 믿었고, 이제 증거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사,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써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From Jerusalem to Rome

사도행전 Acts 23:1-11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And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Paul said, "Brothers,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And the high priest Ananias commanded those who stood by him to strike him on the mouth.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Then Paul said to him, "God is going to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Are you sitting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and yet contrary to the law you order me to be struck?"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Those who stood by said,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And Paul said, "I did not know, brothers,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6.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Now when Paul perceived that one part were Sadducees and the other Pharisees, he cried out in the council, "Brothers, I am a Pharisee, a son of Pharisees. It is with respect to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And when he had said this, a dissension arose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nd the assembly was divided.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For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nor angel, nor spirit, but the Pharisees acknowledge them all.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Then a great clamor arose, and some of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party stood up and contended sharply, "We find nothing wrong in this man.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spoke to him?"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And when the dissension became violent, the tribune, afraid that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commanded the soldiers to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among them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귀환 이후 행한 네 차례의 변명 중에 두 번째 변명(the second defense)을 실시합니다. 천부장이 초청한 공회(sanhedrin)에서 행하는 변명입니다.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And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Paul said, "Brothers,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Paul looked intently at the council.
여러분 형제들아! Brothers!

바울은 그를 불리하게 심문하는 공회를 도리어 "형제들"로 불렀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가장 전형적인 변명(defense, apology)의 예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일에 전혀 하자가 없다(no problem)는 주장입니다.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And the high priest Ananias commanded those who stood by him to strike him on the mouth.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했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그 입을 치라! Strike him on the mouth!

대제사장으로서는 바울의 그 말을 결코 동의할 수 없어서 나온 돌발행동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변명 중에 있는 자를, 그것도 그 입을 치라니!

시민권자 바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자기를 변명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기본 권리를 무시한 행동을 했습니다.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Then Paul said to him, “God is going to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Are you sitting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and yet contrary to the law you order me to be struck?”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You whitewashed wall!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심으로써 하셨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God is going to strike you!

네가 나를 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결코 그 입을 맞을 죄가 없다는 것, 잘못 한 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신명기 Deuteronomy 28:20-68에 등장하는 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벌을 암시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You are contrary to the law. And you ordered me to be struck?

산헤드린에서 공회원이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 하는가, 되묻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어긴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You shall do no injustice in court. You shall not be partial to the poor or defer to the great, but in righteousness shall you judge your neighbor.

레위기 Leviticus 19:15

바울은 율법을 어긴 자에게, 그가 설령 대제사장일지라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Those who stood by said,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을 네가 욕하느냐?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And Paul said, "I did not know, brothers,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재판장을, 대제사장을 욕할까?
바울은 곧바로 변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Brothers, I did not know that he was the high priest!

정말 그랬을까요? 산헤드린을 잘 아는 바울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인가요?

사실 나는 여기서 바울이 대처하는 이 방법에 크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울은 정말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You shall not revile God, nor curse a ruler of your people!
출애굽기 22:28/히브리어 22:27

참고로 여기서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우리말 성경은 "재판장"으로 번역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바울은 여기서 대제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문입니다: 출애굽기 22:28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바울이 어째서 대제사장을 저주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어찌 바른 대제사장인가? 그런 영적 도전입니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바울이 가진 이 태도는 예수님께서 당대 산헤드린과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배운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6.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Now when Paul perceived that one part were Sadducees and the other Pharisees, he cried out in the council, "Brothers, I am a Pharisee, a son of Pharisees. It is with respect to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이어서 바울은 산헤드린의 구성을 주목했습니다.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Brothers, I am a Pharisee, a son of Pharisees.

바울은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바리새인에게 자기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It is with respect to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바울이 증거하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중에 부활을 거론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이 "변명"은 무작위적인 대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기민하게 구분된 그룹, 곧 바리새인들을 겨냥했습니다. 과연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S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
마태복음 Matthew 10:16b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And when he had said this, a dissension arose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nd the assembly was divided.

바로 그 말 때문에 산헤드린이 나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틈"(division, dissension)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And when they bring you to trial and deliver you over, do not be anxious
beforehand what you are to say, but say whatever is given you in that hour,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Holy Spirit.

마가복음 Mark 13:11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뱀 같은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For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nor angel, nor spirit, but the
Pharisees acknowledge them all.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요원이었지만, 신학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 천사, 영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Then a great clamor arose, and some of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party stood up
and contended sharply, “We find nothing wrong in this man.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spoke to him?”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 중의 몇 명 서기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We find nothing wrong in this man!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까?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spoke to him?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점, 곧 영과 천사가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And when the dissension became violent, the tribune, afraid that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commanded the soldiers to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among
them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물론 사두개인들이 동의할 바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dissension)이 커졌습니다.

천부장이(the tribune) 개입했습니다. 이러다가 바울이 찢기겠다!

천부장이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무리에게서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라!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among the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그날 밤.

문제는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Take courage!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을 지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주 동행!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바울은 두 번째 변증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꿈꾸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제 겨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일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더 못 가겠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야 합니다. 위기의 그 때에, 새로운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배에 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두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선하는 모든 사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사도행전 Acts 27:24

이처럼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유명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사도행전 Acts 27:25

바로 풍랑의 위기에 빠진 배 안에서 그때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그 “아멘신앙”을 고백했을 터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전파의 자리에서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사역지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 새로운 항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무덤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목자(the Shepherd)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금문교회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내일의 통로입니다. 일어납시다. 주님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 울부짖는 자들입니다. 생명길을 알지 못해 두려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귀와 가슴에 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위협과 핍박 같은 다른 모든 조건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에서 결국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드사, 복음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핍박의 자리에서도, 다음 단계를 내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